

한기총, 제96주년 3.1절을 맞으며

■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전통을 계승해 나가겠다 다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한국교회에 이 땅에 뿌리내린 초기부터 가져온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망한다.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민족의 정서적 지주이자 보루 역할을 해온 한국교회는 평화적·자주적 독립운동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확산시켰으며, 인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민족 계몽과 근대화에도 힘쓴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실로 한국교회는 현대사와 함께 숨쉬며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하나님께서도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셨음을 감사

한다.

이제 제96주년 3.1절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고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지켜왔던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전통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로 신사 참배를 거부했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황무한 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전파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둘째,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극악한 인권유린일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잔인한 행동이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은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역사를 왜곡시키는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할 것이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 세대,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고 상처받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다. 사회적 통합에 앞장서서 화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서, 3.1운동 당시와 같이 민족을 신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개,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 영적도력을 회복하고, 나눔과 섬김 사역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주후 2015년 3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15년 3.1절 메시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십자가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며

1919년 3월1일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원들이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비폭력평화시위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서울을 시작으로 농촌, 그리고 만주, 도쿄, 오사카, 그리고 미국의 팔라멜피 아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평가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한 최초의 민족 독립운동이었고, 중국 및 아시아 민족 해방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어 1세기가 지난 지금에 우리들은 3.1운동의 교훈을 명심하며 애국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김선주, 이승훈 등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대접받고 편안 한 자리에 연연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도 의미 있는 길에 서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 900여만의 장로교인들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십자가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조화롭게 하나가 될 때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젊은 세대와 노년층, 배운자와 배움이 적은 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런 십자가 사랑의 실천이 진실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송고한 3.1정신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반복하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화이고 생이었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배출하는 교육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 주위는 강대국들이 저마다 군사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대국화, 러시아의 핵 폭격기 시위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시도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3.1정신으로 다시 무장하여 용감하게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황수원 목사

다시보는 3·1운동과 한국교회

조선 독립은 민족요구의 正義人道이며, 필연의 公理天則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봉기한 항일 독립운동이 3·1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운동(三一萬歲運動)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독립운동을 태동시키고 불을 당기고, 확대한 주도 세력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약선배들이었다. 즉 3·1운동을 시작한 독립단체인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이를 이끈 인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물론 민족대표 33인의 종교적 성향에서 보듯이 이 운동은 기독교계 이

외에도 당시 천도교와 불교계 등과의 연합에 의해 추진된 초종교적인 민족 연합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기본적인 방법은 독립청원 운동이었다. 개항이후 독립협회의 민권 국권 운동에서 애국계몽기의 '신민회'의 비밀결사 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민족운동을 이끌어온 중추적인 인사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기독교 교세는 전인구 1,700만명 중 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교세를 가지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사가 16인이나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지도자들을 품고 있는 가라는 사실적 증거가 될 것이다.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있던 시각에 평안북도 북단에 위치한 의주 지방의 서부교회에서는 유여대목사의 전두지휘에 따라 전교인들이 의주 시내로

뛰어나가 만세시위를 펼쳤는가 하면, 당시 장로교 총회장인 김선주 목사는 평양 숭덕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파급되기 시작한 만세운동은 그 불길이 북쪽으로 평양, 의주를 시발로 선천, 정주, 안주, 진남포, 원산, 그리고 해주, 사리원, 연백 등 비교적 기독교세력을 기반으로 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져갔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96번째 3.1절을 맞으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소위 높지 않은 민초들과 시대 정신에 앞장섰던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호상 사무총장

천일사찰 봉은사, 전철역의 이름으로 안 되는 이유 분명하다.

서울시와 불교계는 봉은사역명을 자진 철회하고, 역명을 개정·고시하라.

오는 3월 28일 전면 개통 예정인 전철역 9호선의 929경거장이 '봉은사역'으로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과 기독교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와 불교계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봉은사역'이 절대 안 되는 이유 명백하다. 봉은사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경기도선종의 대본산이었다. 즉 서울을 비롯, 광주, 고양, 양주, 시흥, 수원, 여주, 이천, 양평, 파주 등 10개 구역을 총괄하는 천일불교의 총본산이었다.

둘째는 천일인사 가운데 봉은사 출신이 여럿 있다. 주지급만 3명이 있다. 조선총독부가 환민화정책으로 '심전개발운동'을 펼칠 때 이에 적극 가담했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 후원을 위해 갖가지로 선동했던 강성인은 1934년과 1937년 봉은사의 주지를 연거푸 지낸 사람이다.

또 1940년 이후 일제에 의한 참정개명에 앞장섰고, 일본군의 무운장구

를 기원하는 기원제 및 중일전쟁 기념법회와 법요식을 거행하는 등 천일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총태육도 1940년 봉은사의 주지를 지냈다.

그런가 하면, 일제의 심전개발의 선전지 역할을 하던 '불교시보'를 창간하였으며, 일본 군대인 황군에게 충성을 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신사참배를 적극 지지하는 등의 천일행위에 앞장섰던 김태호도 해방이 되던 해 봉은사의 주지를 맡았다.

셋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봉은사와의 밀접한 관계이다. 박원순 시장은 2007년 봉은사(당시 주지 명진)가 각계의 유명 인사 25명을 내세워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 때, 이 기구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봉은사 주지와 만나 봉은사와 지할 9호선의 지하 연결 통로(120여 M)건설과 함께, '봉은사역'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볼 때,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역을 불교의 사찰 이름을 넣어 사

용한다는 것은 서울시로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도, 그리고 불교(조계종)로서도 결코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 불교계는 2010년 안암동 길을 '인촌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 바 있다. 이유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 '천일파'라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안암동 같은 현재 '개운사길'로 명명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개운사는 과거 조선총독부 산하 경기도 선종 대본산인 봉은사의 말사(末寺)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불교계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이상폐천(以善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이 아닌가 한다.

서울시는 무슨 이유로 절대다수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봉은사의 천일 오명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불교계는 봉은사역명을 자진 철회하고, 서울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명으로 개정·고시하라.



유만석 목사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전송물 등록번호: 서울다-07837번지는 신문출판물 및 방송물임을 준수한다
대표: 최동진 목사 이사: 장원 목사 사장: 소진 목사 발행: 장남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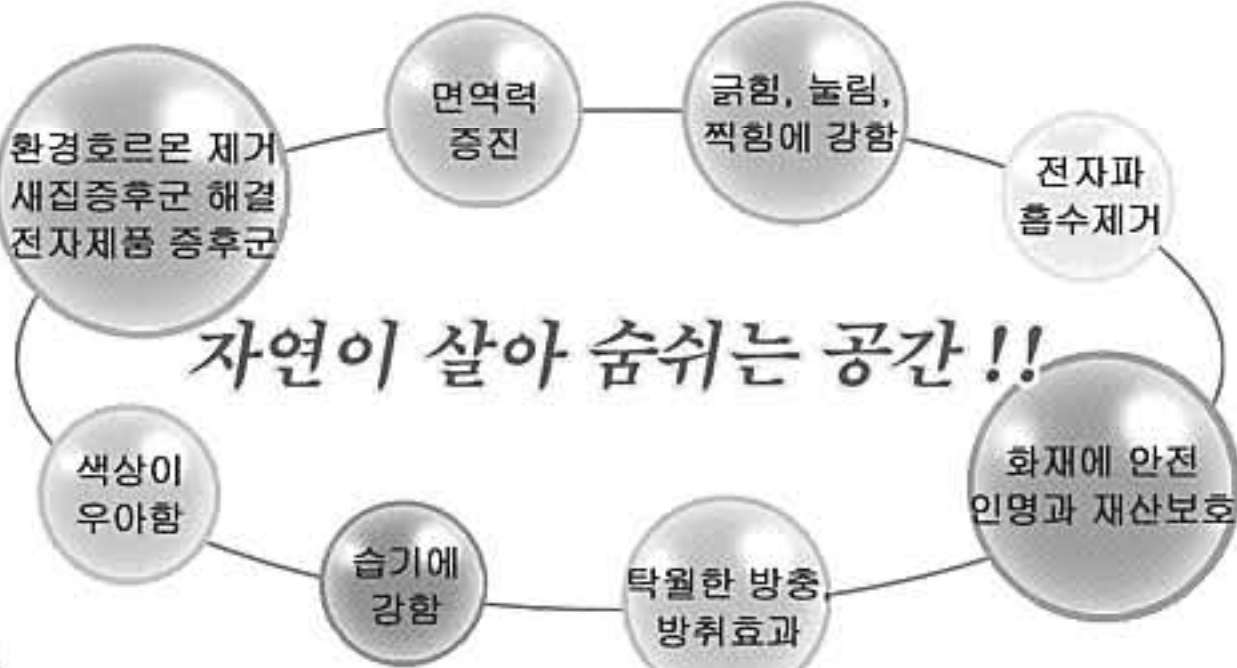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 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영로 176길 32호 대일빌딩 2층 202호 (고정번호 574-10, 대우빌딩 2층 202호)
▶E-mail: jtpress@hanmail.net / jntvcp@naver.com
▶전화: 032-672-3031(팩스번호) ▶직통: 070-8230-0034
▶H.P: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선물을 보내는 선물이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납)
하나은행 759-910292-36907 / 농협 455030-56-005509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특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 ▶환경성 면역력저하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재를 원목에 함유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마루입니다.
-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유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사)한복음, 남·녀 대표회장 취임예배 드려

취임식을 가진 남성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여성대표회장 오영자 목사

사)한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과 여성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4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총재 이종인 목사 인도로 예배를 진행하며 상임부총재 김원훈 목사가 기도, 전도부총재 최옥순 목사가 성경(출애굽기 4:17-20)을 낭독, 한복음화운동본부의 특색을 소개했다.

이날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모세가 잡은 지팡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명감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중기 목사(홍보부총재), 2.북한동포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김정호 목사(문화부총재), 3.한복음의 발전과 사역을 위해서 지미숙 목사(홍보부총재)가 각각 기도했다.

이어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지저스



(개혁)총회 강복도회 노회장이며,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원장, 드림선교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제어교역자협의회 운영부총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여성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이날 여성대표회장 오영자

목사는 "주님이 쓰신 나귀처럼 직임을 다할 것"이라며 취임사를 전했다.

한편 한복음화운동본부는 1973년 9월 한경직 목사의 주도로 백낙준 목사, 김옥길 박사 등이 창립하여 한복음화운동이 법조단적으로 전개되었다. 한복음화운동본부는 오직 복음과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건설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전국 지역성회와 세미나를 통해 성령운동, 복음화운동, 개혁운동, 통일운동, 부흥운동을 전개해 한국과 세계에 성령의 불길을 지피는 도화선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성순회 기자 cpj01@naver.com

타임즈 / JTNTV방송 고문)가 정상은 목사(대표회장), 오영자 목사(여성대표회장)에게 대표회장 취임패를 증정하고, 예장(고려) 총회장 전 환 목사와 기침 총회장 박도희 목사, 서울동부지역총재 전용만 목사, 서울북부지역총재 장현운 목사 등이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한복음화 사역에 전념하고 일익을 감당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는 현재 김해주안교회 당회장이며, 김해시 북부경찰서 경무과 고려신학교 부산캠퍼스 학장, 예장(고려) 총회장 역임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종교인 대상 지도자 부문 수상을 하기도 했다.

여성 대표회장 오영자 목사는 합동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목회자의 자성과 성찰 촉구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 2015 한국교회를 전망하다' 편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진중한 성찰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CTS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하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의 한국교회를 진단하기 위한 '2015 한국교회 전망하다'를 방송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윤재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의 사회로 전용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정영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백남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신용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가 출연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현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방안 △선교 130주년 한국교회의 과제 등에 대해 패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통일'을 강조한 패널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

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함께했다. 이신용 목사는 "광복 70년은 분단 70년이다. 통일에 앞서 믿는 우리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용서와 화해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심자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백남선 목사는 "우리 사회는 정치, 지역, 세대 등의 많은 분열을 겪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스스로의 영적 빈약성을 점검하며 작고 사소한 분열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민족 분단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방안에 대해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목회자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했다. 전용재 목사는 "한국교회 힘은 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성과 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장종현 목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낮아짐이 있어야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지도자들부터 연합정신을 가지고 내려놓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선교 130주년

을 맞는 한국교회를 향해 "교회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을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CTS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다'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7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불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 주는 하나님의 말씀

3월 3일 개강, 본문 요한계시록, 강사 김정석 담임목사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호흡한다. 광림교회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열어 매년 봄과 가을에 성경 말씀을 배운다. 이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주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라"이며, 본문은 요한계시록이다.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화요일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에 김정석 담임목사의 명쾌한 말씀 해석과 의미, 적용으로 요한

계시록 강의가 진행된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96년경 밧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

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과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종말의 기록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는 희망의 등불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계시이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

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 때가 가까움이라(계 1:3)"고 하였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와, 고난을 지나 잠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시대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다.

정보경 권사(26교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트리니티 말씀 공부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한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2015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불학기 요한계시록 강의를 직접 출석하여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믿음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또한 예배와 속회에 집중하며 믿음의 좋은 터 위에서 참된 생명으로 승리할 것이다.

한영신대 2014년도 학위수여예배

학부190명, 대학부 44명 등 총 234명의 졸업생 배출

한영신학대학교(이사장 심경옥 권사, 총장 이억범 박사)는 지난 12일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90-42 동교대강당에서 2014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위수여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오전 11시 학생처장 김진수 박사의

인도로 이사 및 교수 임장과 이준호 박사의 기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가 "빛과 그림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수년간의 탐과 노력이 오늘의 학위수여식이 있게 했으며, 학



교를 다니면서 수학과 노력한 여러분의 지식의 결실이 목회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기독교를 소금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으며

더불어 빛에 비유를 한다"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졸업이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밝히는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교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190명, 대학부 44명

학원 총회장상에는 고상도 학우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장 이억범 박사는 훈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본교는 졸업생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졸업생으로서 본교가 여러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영신학대학교는 지난 1970년 교단 적영신학으로 시작되어 1981년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에 준한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1996년 교육부로부터 한영신학대학교로 승격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2013학년도 대학원 / 후기, 2104학년도 대학원 / 전기, 학부 학사학위 / 전기, 학부 학사학위 1 / 후기, 학점은행 학사학위, 실천목회 과정의 졸업생들이 대 상이다.

등 총 234명의 졸업생과 학교관계자 졸업생 가족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 최고의 영예인 학부 법인이사장상에 전연희 학우가, 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표어 :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것을 힘써지키라(엡4:3)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전희희 목사
성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회



서재식 목사
송정교회



박영석 목사
여변교회



송인섭 장로
영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0-168 H.P 010-5325-389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 제1장 「사도영성」에 대한 이해(3)

제1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

[지나호에 이어]

영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특성으로 삶의 실천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 영성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에 따라서 사는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여 '통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을 분석해 보면 '지적인 차원',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 등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적 요소들은 인간 속에서 서로 통합되어 영성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홈즈' (U. T. Homes)는 "영성은 관계를 위한 인간의 주역으로서, 이 능력은 감각적 현상을 초월하며, 이 관계는 주체자의 노력과는 독립된 고양된 의식으로서의 주체자에 의해 감지되며, 이 관계는 역사적 환경에서 본질적 의미가 주어지며, 세상에서 창조적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영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영성은 삶의 궁극적 실체와의 만남을 통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만남이다. 이 관계는 지·정·의를 통합한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이 관계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목적의식, 정서를 체험케 된다. 그리하여 궁극적 실체, 자기 자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계적 이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 삶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영성이해

'영성' (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혼란스럽고 혼용되는 혼란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로 쓰면 '靈性' (영성)은 글자 그대로 '신령한 성품'을 의미하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사전에서도 한자어의 뜻을 풀어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영어의 'spirituality'는 '정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일반적인 이해를 생각해 볼 때, '영성'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또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애까지도 걸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은 '인간의 최고 덕과 가치와 목표는 무엇일까?'와 '같은 형이상학적 물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코 한 가지만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다르며, 자신만의 최고의 덕과 가치와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

영성이란 단어는
인간 경험 가운데 있는
한 요소 즉, 정확히
말하면 인간으로서
경험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미에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인가?'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차이는 '영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영성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영성이라는 말은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이상적이며 최고의 덕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하나의 정신을 받아들이며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혹자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 뺄점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 쾌락이나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성이 없다'

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로 형성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무한 선으로부터 무한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가치의 차이들을 단지 '영성의 차이'라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의 개념에 대한 모호한 이해로 인해서, 그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개념들이 오늘날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카톨릭 신학자인 '마이클 다우니' (Michael Downey)는 영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신성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진지한 추구들을 충분히 포용하면서 동시에 영성이라는 거대한 이름하에 행해지는 인간의 자기표현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성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흐름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차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 '분열과 비인간화하려는 세력 앞에서의 개인의 온전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다우니'는 인간본질과 경험의 구성 요소로서의 영성을 강조한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들을 열거하면서 종교적 영성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어두고 있다.

"영성이란 단어는 인간 경험 가운데 있는 한 요소 즉, 정확히 말하면 인간으로서 경험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성은 '궁극적인 가치를 향한 인간의 진실된 추구 또는 최고의 이상이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말한다. 이런 광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영성은 '자기 초월을 통한 점진적인 인간통합'에 관심을 가진다. 이는 궁극적 관심의 지평선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다우니'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통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비브리칼신학교 2014년도 졸업식 가져

주님께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는 졸업생이 되라

비브리칼신학교 (학장 강진명 목사)는 지난 2월 13일(금) 오후 2시 여전 도회관 2층 루이스 기념관에서 2014년도 졸업감사예배 및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박현준 목사(부학장직무대행)의 인도로 박인대 목사(학술원장)의 기도, 박현준 목사가 성경봉독(창 4:2)하고, 강진우 권사의 특별찬양을, 학장 강진명 목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위로부터 받은 지혜, 지식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브리칼신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은 주님께 합한자들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는 졸업

생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졸업과 동시에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신학부: 이준영, 신대원부: 김종길, 김재춘, 나운영, 이상현, 이용희,

패를 수여했다.

신대원장 반정웅 목사는 격려사에서 '여러분은 사명의 쟁기를 잡고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부름에 상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자,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 빛으로 남는 생애 그렇게 살기를 축원했다. 이어 윤원선 교수(교육학)의 권면, 나병찬 교학처장의 광고, 학장 강진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비브리칼신학교(학장 강진명 박사)는 2월 27일(금) 영성훈련원 빛으로교회에서 목사고시들, 3월 13일(금) 여전도회관 루이스 기념홀에서 목사안수식을, 7월 9~11일까지 강화도 갈매산신학교기독교원에서 하계 계절 학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윤숙, 인태교, 정종열, 평신도리더 협: 김귀례, 정주희, 등에게 졸업장이 수여됐다. 학술원장 박인대 목사는 이준영 전도사, 이용희 강도사에게 감사

"피해망상 억제하고 꿈과 소망 키워야 건강한 잠재력 생겨"

욕구불만의 폐해(51회)

현재 사람의 역량이 지나온 노력의 발자취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그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의식 구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자기같이 실패한 사람은 이 왜곡된 구조에 철저히 희생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을 자신에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욕구불만이다.

그런데 이 욕구불만이 노화를 촉진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욕구불만은 우울증이나 깊은 열등감으로의 지름길이다. 물론 서구의 철저한 능력주의의 인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벌, 혈연, 지연 등 외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열등감이나 피해망상에서 나온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평범함을 감사하라. 주어진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라. 이 경쟁심리와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만이 그동안 얻어보지 못한 무한한 잠재능력을 샘솟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능력이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새로운 꿈이 솟아날 수도 있다. 대기만성형의 대표적인 삼국지의 유비는 한 마디로 아둔했다. 전략이나 전술에 어둡고 동작에 민첩성이

부족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잡는가 하면 잃어버리고 결정적인 찬스 때마다 의리를 내세워 양보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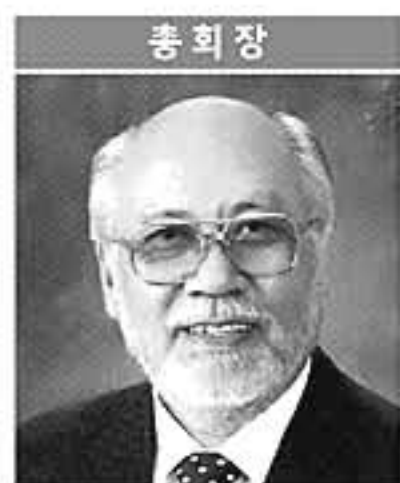
그는 항상 빈털털이였고 사실상 실패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태연자약했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웅대한 꿈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유비의 이런 점 때문에 적들은 유비에 대해 경계심을 품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뜻과 포부를 비밀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황성주 박사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 그는 군림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과감히 맡기고 잔소리가 없다. 그래서 부하들은 소신껏 말할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다. 이른바 기대한 조치가 물 흐르듯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 "3박자 건강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김정열 목사
총무노회강상희 목사
경전노회장한국 목사
대한노회조재호 목사
경기노회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임순중 목사
대전노회김재길 목사
부산노회박민규 목사
대한노회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행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신대원	신학과 (주/야간)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부 졸업 또는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부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취 후 목사안수

•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학기를 활용함
- 여독제도가 잘 활용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함

• 전안개혁총회신학

학장: 김정열 목사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세교길 43번길
27-17 새예루살렘교회
전화: 041-534-8765 010-4731-0391

• 대전개혁총회신학

학장: 임순중 목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43 번지 2층
관산성교회 내
전화: 042-320-9193 010-6413-3456

• 부산개혁총회신학

학장: 이은우 목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47-14
전화: 010-5511-484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연락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3-3 총회장: 김정열 목사(010-2695-0391) 서기: 조재호 목사(010-6266-1331)

“관악구민을 위한 신년기도회 및 관악경찰서장 취임 축하예배”



지난 5일 오전 7시에 관악감리교회(이선규 목사 시무)에서 관악구청 교구협의회와 관악경찰서 교경협의회가 연합하여 기도회를 가지고 이어서 관악구청 교구협의회 제35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관악경찰서 경목실장 양정섭 목사의 예배인도로 서기 박선원 목사(평화교회 관악교구협의회)의 기도와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 신우회가 연합하여 찬양하고, 부서기 김광선 목사(관악교구협의회 관선교회)가 성경봉독(요 8장 11절)하고, 이정석 목사(관악교구협의회 대표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관악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관악경찰서 박규갑 목사(교경협의회 대표회장)

는 “배려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에는 1. 나라와 대통령과 민복을 위하여, 조준현 목사(관악교구협의회 공동회장), 2. 관악구민과 구청장과 직원을 위하여, 윤창규 목사(관악교구협의회 사무총장 윤창규 목사), 3. 관악경찰서와 시장과 직원을 위하여, 윤석봉 목사(관악교구협의회 경목실장)이며 관악경찰교회담임) 등이다.

따라서 관악구청장 유종필 구청장의 인사가 있는 후 관악교경협의회 대표회장 박규갑 목사는 관악경찰서에 부임한 종경 유진규 서장에게 성경 1권과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관악경찰서 유진규 서장의 인사가 있었다.

아울러 관악교회 이선규 목사의 인사와 지역 교회를 소개했다. 또한 총무 노성수 목사(관악교구협의회)가 광고한 후 김경길 목사(관악교구협의회 상임회장이며 직전 경목실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관악교구협의회 제35차 정기총회를 대표회장 이정석 목사의 인사말과 증경회장 윤석봉 목사의 기도, 시기의 회원 점명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포했다. 질차보고 및 진회의록낭독, 사무총장 총무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임원선거를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임원을 선정한다. 대표회장과 임원이 유인되고 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신년도 사업안과 예산안은 유인물대로 받되 임원회에서 보완하기로 하고 대표회장 이정석 목사가 기도하고 폐회되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이정석 목사(관악교회) 직전회장 김달수 목사(함동측) 수석상임회장 김경길 목사(함동), 길자연 목사(함동), 상임회장 황선수 목사(함동), 김용완 목사(순복음), 양정섭 목사(정통) 최나중 목사(백석), 박규갑 목사(함동), 공동회장 교단대표, 사무총장 윤창규 목사(함동), 서기 박선원 목사(대신) 회계 노성수 목사(개혁), 감사 양정섭 목사, 김한성 목사 등이다.

원세훈 판결의 문제점

첫째, 위세훈은 종북세력이 대선에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선한 말 아닌가? 더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더욱 그렇다. 그럼 이정회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어도 종단 말인가? 통진당은 결국 세력으로 해산되었다.

하나의 행위가 국정원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

둘째, 원세훈이 심리전단에서 무슨 댓글을 다는지 일일이 보고받았다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판결이다. 국정원장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국

정원 그 어느 직원도 원장에게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원세훈은 오히려 대선에 압박하여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한다. 2



심 재판장은 추측만 가지고 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여준, 주진우를 재판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세발간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때는 단정하기 힘들고 원세훈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

셋째, 2012. 8부터 사이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심리전단의 트윗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심의 논리로 따지면 국정원은 평소 대북심리전을 하다가도 선거 때면 되면 일종 쉬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데 한 표 거는 것이다.

국내최대 규모, 제19차 세계선교대회 종료

42개국 4천여명 참석해 '나의 선교' 찾아 다짐

시대의 제약을 막을 '나의 진도, 나의 선교'를 다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19차 세계선교대회가 3박4일의 일정으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 세계총국이 주최하는 제19차 세계선교대회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임마누엘성교회에서 '선교의 세가지 방향'을 주제로 42개국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대회 개막식에서 류광수 목사는 “지금 전 세계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모슬렘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선교대회에 42개 나라 520여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에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훈련 받아 자기 나라로 가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기도, 나의 진도, 나의 선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 나의기도, 나의 진도, 나의 선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금번 대회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글라데시 복음화와 후대 육성을 위하여 건립되는 램턴

트교육시설 건립위원장으로 ABDUS SALAM 선교사를 임명하고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가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슬람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신변보호차원에서 살람 선교사 대신 10년동안 동역해온 정지태 선교사가 대신 수여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공식적으로 29개국에 350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64개국 3천과 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한 선교사역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바누아투에 고교를 양 기원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동남아 저개발 국가 엘리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에도 힘을 쓰고 있다.

한편 개막다음날부터 2박 3일 동안 경기도 이천 덕평 RUTC에서 선교사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을 갖고 폐회되었다.

새생명교회 푸드쉐어 (Food Share) 사역

“승광철 목사, 다우전옥스 지역”

LA에서 101 프리웨이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다우전옥스 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가 나온다. 새생명교회(담임 승광철 목사)는 다우전옥스 다운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언덕 위 넓은 대지에 자리잡은, 마치 천원교회를 연상케 하는 목조건물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모인 조그만 교회에서 푸드쉐어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줄을 서서 서서 있었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다. 친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고 의욕에 넘치는 첫 인상을 가진 담임인 승광철 목사가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주변에는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는 과일과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저 건너편에는 빵, 달걀, 각종 통조림, 치즈 등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식품들이 박스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푸드쉐어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여주었다.

새생명교회는 이 지역에서는 25년의 역사를 지닌 중년교회다. 한때는 교회 부지가 4에이커가 넘었고, 150여명

의 성도가 있던 다우전옥스 지역에서는 꽤 교세가 있던 교회였다. 그러나 몇 년 전 담임목사의 병고와 더불어 5명의 담임목사가 바뀌는 등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가 20 여명 안 밖으로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한달전까지, 지난 1년 반 동안은 담임목사 없이 몇몇 성도들에 의해 교회를 이끌어 왔다.

이 간절한 기도의 열매속에서 연결된 분이 승광철 목사다. 방콕에서 뉴스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사모님 또한 음악을 전공한 분이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권사님의 인도로 새생명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하게 되었고,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담임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푸드쉐어(Food Share, Inc.)는 남가주 벤츨라카운티를 거점으로 주변의 주요 마켓들과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로부터 식품의 판매기간이 지나



기 전 식품들을 기부받아 어린이와 노약자 및 저소득층의 가정들에게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는 식품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벤츨라 카운티 각 지역에 150개의 대행단체들이 연결된 가운데 매달 7만5천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을 나눠주고 있다.

승 목사는 푸드쉐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주셨다”고 표현했다. 새로 부임한 승광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분당, 교육관, 천교실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봉사와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 다니엘 방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주제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노회장



장한국 목사

서기



박민규 목사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회계



유순옥 목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계시록 22:12)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5년도 목표

“떠 떠고 네 등불을 밝히라”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요일 5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일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춘대교회

전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kr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사무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대림프라자, 고호5층)
홈페이지 : http://jlc.kr ☎ 031)424-7612, H.P 010-4436-7060

■ 요한계시록1장 강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6)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구름들과 함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입니다. 히 12:1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름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계 19:14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회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 그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은 천사가 아니라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주님 재림 때 함께 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본분 7절에서 “구름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며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의 6절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들이 7절의 구름들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 신천지의 이만희가 재림 주라고 말합니다. 그가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재림 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 2천 년 전 골고다에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그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고 흩어 되었습니다. 본문의 “그를 찌른 자”는 예수 재림 때 주님을 찌른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개혁총회 부총회장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이단이라고 찌르면 곧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고 정죄·대적으로 우리를 찌르면 곧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배도한 자들이며 이들에 의해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림 하시는 주님을 직접 볼 것이며 또 찌른 자들이 애곡한다는 것은 재림 주님이 심판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되므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순교 당한 우리는 재림 주와 함께, 곧 구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주석(主席)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본문의 주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4절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8절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이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계 2:8의 “스마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신 이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계 22:12-13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이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태초”가 “시작”입니다. 이 “태초”는 인제를 말합니까? 천지창조의 “태초”는 아닙니다. 천지창조(창 1:1)의 “태초”는 요 1:2-3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요 1:1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쓸데없이 쓴 말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의 어느 시작점에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내가 칩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사 2:7)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그 시작점이 본문의 “알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태초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분은 요 1:2-3에 하늘나라로 지으시고 그 후에 물 위에 우뚝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본문 1절의 “그의 종들”에게 해답이 될까요? “그의 종들”은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을 누가 지었나요? 태초의 말씀이 지으셨습니다. 그

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알파(시작)가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후 그 생명이 자라가야 하는데 직접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영입니다. 살리는 영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살찌게 하고 성장시키십니다.

목욕은 왜 필요할까요? 영만 있으면 결함(缺憾)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知識的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똑박이 깨져서 그릇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또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 모을 수 없는 것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특별한 방책을 강구하시어 다시 땅에 쏟아진 물을 끌어 모아 담는 분으로 용서하시고 세우셔서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루도 로마서 9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만 경험할까요?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하게 되면 영이 아니다.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부요해지고 성숙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는 오메가요”는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바 된 아들의 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심 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되어졌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어졌으면 안 된 만큼 상이 없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장차 될 예언

잘 믿어서 순교한 자들은 주 재림 때 첫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또 한 번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게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적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이들이 있다면 기상천외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가 있는데 곧 내세상(來世)입니다. 내세상(來世)에 대한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 재림 후 세우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올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신 모든 공생애의 일들이 “그의 종들”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끝내고 순교자 영광을 입혀주는 삼십삼판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므로 주님이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앞 구절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구원의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삶입니다. 구약의 “이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분은 속죄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목사코너(12) -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벧전 1:13)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폰토, 캅파도키아, 비두니아 등지의 지하 20-30층에서 신앙정절 지키며 살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주 재림시 받게 될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하시지요. 왜 이렇게 생각허리를 동이라

고 강조할까요? 과거 베드로 사도 자신이 생각의 허리를 풀어 놓았던 때가 있었고 그것을 뼈 속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벧전 5:5),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본문) 등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허리가 풀려있었던 것이 어떻게 된 것을 말하는가? 이미 주님 제자

로 3년간 다 양육 받은 이후의 주님 떠나시기 직전의 그의 영적 모습을 나타냅니다. 먼저 요 13:37, 38 주를 죽을지 언정 따르겠다는 자신의 신념, 결심이 있었지요(신앙이 아니었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심도 대단하지요. 주를 끝까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등등한 위험 속에 서도 큰 환난의 날에 과연 목을 내놓고

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는 순교할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순교자 명부에 녹명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신앙이지요. 이것이 곧 허리를 동인 상태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는 두 번째로 요 21:3 고기 잡으라 했지요. 밤새도록 헛수고 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였고 주님이 제자로 그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라고 하신 사명을 떠내려 보낸 것이지요. 이것이 곧 허리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 21:15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새 사랑으로? 묻는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필레오 사랑으

로)라고 영동하게 답합니다. 이것이 허리를 역시 풀어놓은 것의 영적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행 1:15-26의 그의 모습이 허리를 풀 것이지요. 제비 뽑아 사도를 세우자고 신창하며 리더한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이 제비뽑듯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즉 바울 사도를 가리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인본적인 사상과 하나님 말씀을 자기생각에 맞춰서 인용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 곧 생각의 허리가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생각의 허리를 확실히 동였습니다. 왜요? 성령에 의해 살고

성령에 의한 생각으로 생각하며 성령으로 예수 증거, 말씀 증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그는 주 재림시 받게 될 큰 영광(큰 구원)인 첫째 부활영광을 밝히 보고 이를 확신하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불같은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될 것을 미리 깨닫고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받으신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따라 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순교도 하게 됐지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생각의 허리를 동인 것입니다.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경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lvcjp@naver.com



전국교회 3월 주일예배 안내

2015년 3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문서선교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게재문의 : 010-543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담임 이규필 목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성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의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96-79
☎(032)505-3351

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1선수촌 213-703호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실만한물가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김만식 목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수목원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최순길 목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서울개혁신학



총장 윤관 목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108-1201호
☎(010)3758-8905

천안개혁신학



학장 김정열 박사
충남 천안시 배방읍 휴대세교길 43번길 27-17
☎(041)534-8765, M.(010)4731-0391

대전개혁신학



학장 임순종 박사
대전시 서구 변동 3-43 2층 큰산성교회 내
☎(042)320-9193, M.(010)6413-3456

부산개혁총회신학



담임 이은우 목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947-14
☎(010)5511-4848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조재연 목사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31-3
☎ M.010-6266-1331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우성@상가202호
☎(02)869-0166 Fax(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화요일 화요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박형위 목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02)593-39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향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 3동 370-40
☎(02)583-1955 M.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원로 임신연 목사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허식 목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아동535-5 센스빌딩 4층
☎(031)416-8290

교단 및 노회 탈퇴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연 교단 및
동북노회를 탈퇴하게 되었음을
2015년 1월 28일자로 공고합니다.

김사랑, 김민희, 김은혜(장송) 목사 일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시 30분
주일밤 오후 7:3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5번길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김종주 목사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01호
☎(031)378-9349(FAX겸용), M.010-2378-934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 저녁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담임 소진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버시티 2단지 옆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담임 이이중 목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031)714-1426, 7236

기독교대한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일예배 오후 9시

담임 임예숙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M.010-4611-3221

장기요양기관(행복의 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관중 목사

www.I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033)541-0687, M.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033)655-0691, 0692 M.010-6409-009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담임 박용숙 목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M.010-3775-5154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담임 서명범 목사

충남 공주시 이길 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박완구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M.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욱 목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070)8632-6993 M.010-3035-5704

바른언론사로 힘찬 출발을 다짐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신년하례감사예배와 이사회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론사로,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사, 성장하는 신문사, 실천하는 언론사로, 목소리가 있는 신문 방송으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되고, 강한 사명감으로 출발하자는 다짐과 함께 2015년 시무식감사예배를 드린 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내송동 소재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본당에서 사무국장 권영민 목사(등불교회 / 예배예배총회 총회장)의 예배인도로 삼손종 목사(강원지사장)가 기도하고, 진행자의 성경봉독(눅 4:1~2)과 꾸미우리(김창숙 목사)의 불찬양단의 찬양과 워십, 찬양사역자 정중환 목사가 찬양을 드렸다.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는 “그래야 이겁니다”라는 설교에서 ‘양반에 대해 예를 들면서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반복되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도구를 들어 두들기는데 큰 그릇으로 완성되기까지 크고 작은 때를 수없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연단은 싫어한다. 성령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다음 과정을 싫어한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2015년 우리는 다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려서 인도하시는 데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갖자며 권면하고, 오늘 나 한사람의 삶이 성

령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라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성령충만만 받지 말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며 우리는 광야의 삶도, 어떤 마귀의 미혹도 물질적인 미혹도 명예적인 미혹도 초월하여 이기자고 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 이 근심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

아울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전국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은퇴목사님들의 구둑이 300부가 넘어섰으며 이를 위하여 선교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해 줄 것을 말하고, 이사장 정기남 목사(전원중앙교회)의 결혼기념으로 신년하례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구지사장과 포항지사장, 그 외 일부지사장 및 이사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주타임즈 대표 방송철 목사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영동포역 모 식당에서 만난 양사는 미국 LA 미주타임즈 방송과 JTNTV방송이 동시에 사진과 동영상 설교를 방영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날 본사와 지사를 위하여 대

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땀속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 꾸미우리 불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헌금시간을 갖고 운영이사 유순옥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은 후 한국경북총회 사무총장 홍창표 목사(영성신학원 학장)가 축사를 전하고 부사장 조강수 목사(인천광역시 연합장로교 총협의회 대표회장)는 가족의 한분이 소천한 관계로 대표이사가 대신하여 축사를 전했다.

이날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는 인사에서 ‘2015년 한해도 여러 이사님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생활, 가족 위에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하고, 또한 건전한 신앙의 도리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JTNTV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발행인과 전국 각 지사 대전, 포항, 부산, 광주, 춘천, 정동진, 인천, 수원, 순천, 목포 등에서 먼 길인 데도 오셔서 협력하시는 목사님들을 빌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해 주신 사역자들에게도 감사하며 인사’했다.

지사장 박양우 목사, 문서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삼일이사 최낙현 목사, 해외 30개 지사 및 전국 25개 지사, LA미주타임즈 제휴사를 위하여 운영이사 임찬미 목사(삼성중앙교회 담임), 국가 안보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삼일이사 서영웅 목사(필리핀대학 교 총장), 주사랑교회와 회원들의 섬기는 교회와 일터를 위하여 운영이사 한사라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를 한 후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담임 / 개척총회 부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장한국 목사(부이사장)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주례로 열린 세미나에 특별강사로 초청을 받고 한 주간 많은 은혜를 끼친 후 귀국했다. 이날 영양이 높은 식사를 대접하는 주사랑교회와 손길을 위하여 본사 교문 박한규 목사의 축복기도로 40여 명의 이사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문서선교를 위하여 천복을 다지며 식사를 했다. 아울러 다음 이사회는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에서 4월 24일(금) 오전 11시 개최한다.



YNOT 재단,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서 10만달러 지원금 받아

“기금은 한인 정신건강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예정”

나성영락교회 산하 비영리단체인 YNOT 재단(사무국장 스텔라 김)이 LA 정신건강국으로 부터 한인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0만달러의 기금을 받고,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금 사용 계획을 밝혔다.

스텔라 김 사무국장은 “한인사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전문상담가들이 참여하는 ‘마음 다스리기(Anger Detox)’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 노인회, 학부모회, 양로보건센터, 종교단체 등 정신 건강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며 “그 외에도 ‘심대, 경령기, 노인들의 우울증과 이민 1, 2세의

대화 기술 등 총 1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인들에게 무료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YNOT 재단은 2011년부터 정신 건강 서비스인 “머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부모가 기부한 10만달러가 종자돈이 됐으며, 재단측에 따르면 머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난 3년간 3700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A정신건강국은 정신건강국의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0여개의 지원단체 중 18개의 단체를 선정해 각각 10만달러씩을 지원했다. 정신건강국의 자금은 한해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들로부터 정신건강 관련한 추가적 세금을 기워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쓰겠다고 공언한 펀드 중 일부이다.

다니엘 방 기자 미주타임즈

한보협, 성경보수원형회복 원년의해 다짐

제30차 정기총회 열고 보수원형회복운동 활성화에 예산안 통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한보협)가 지난 12일(목)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 기념관에서 2015년도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삼일교문 지양철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예장 호헌총회장 한홍교 목사가 기도, 예장 예신총회 총무 송성영 목사가 성경봉독(요17:21~23)하고, 감사 이창희 목사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삼일회장 박동호 목사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갓가지 이단 사설 및 왜곡된 거짓 진리로 한국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 몇몇 주에서는 목사들이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거절했다가 벌금을 무는 하한 구속되어 교도에 감금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이 법이 급변 6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전 지역에 영향이 미칠 것이고, 문제는 이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또한 “동 협의회가 바로 서야 산하 회원 교단과 지 교회들이 안정될 것이며, 지 교회들이 안정되어야 영혼 구원 사업, 즉 선교 사업에 매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비전리와 이단 사설에서 한국교회는 물론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데 리더십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해 법인이자 김 알 목사,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 단체)를 위해 심우현 목사(예장, 보수합동 총무)가 특별기도를, 사금열

목사(법인이사)가 헌금기도, 대표회장이범성 목사는 가입교단장 축하해 증정과, 인사말씀을 전하고, 민정식 목사(사무총장)의 광고가, 남성은 목사(경중 대표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사회로 신환철 목사가 기도, 회원점령과 개회선언으로 제30차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한보협 이 대표회장은 2015년도는 WCC운동에 이어 한보

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성경에 의한 보수원형(본질) 회복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목표로 삼고 예산을 확보’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교병수 목사(기독교한국총회 감독)의 축도로 폐회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운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수원형(본질)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며, 보수원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한보협이 앞장서는데 회원교단과 단체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본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역을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모상현 목사
부목사: 모정선 신길원 모성은
마충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김원갑

협동목사: 장창화(은퇴) 서기욱
전도사: 추정희 배순단 진만은 윤영옥
사무장로: 고재현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경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권복희(유직)

은퇴장로: 노남규
협동장로: 이병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EL: (061) 272-4908 FAX: (061) 278-0693
남악예배당: 목포시 남악2로 52번길 남악리교회A동 301
TEL: (061) 287-0692

표어: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동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출구
TEL 031-974-7091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less3377@gmail.com

1(주일) 오전 미국(U.S.A) LA 연도총회(차운성 목사) ☎(818)951-6172
1(주일) 오후 미국(U.S.A) 남가주연안목사회(최정 백지영 목사)주최 삼일성 연합예배
장소: LA 웰시연합교회(성영목 목사) ☎(323)931-9133
3(월)~5(목) 광주 실종선교센터(고성영 목사) ☎(062)432-6392
5(목) 오후 연안목사회(차운성 목사) (총회서 이매리목사) ☎ 010-4870-7572
5(목) 저녁 연안 복음교회(인명철 목사) ☎ 010-9724-0991
6(금) 오전 한국기독교총회(차운성 목사) (대표회장 성영목 목사)
6(금) 저녁 수원 예배당교회(이매리 목사) ☎ 010-2483-0675

제189차 해외성회(189th Overseas Assembly)
9(월)~11(수) 미국(U.S.A) LA 남가주연안목사회(최정 백지영 목사) 영성세미나
☎(213)381-7755
12(월)~13(금) 미국(U.S.A) LA 연합세미나
16(월)~18(수) 필리핀(Philippines) 영결성세미나(오재일 선교사) ☎ 070-8231-4862
19(목) 오전 필리핀(Philippines) 레안보우신학대학교(강익영 선교사) ☎ 070-7538-5977
19(목)~21(토) 필리핀(Philippines) 목회자 & 선교사 세미나(대림성 경일영 선교사) ☎ 0929-453-5977
22(주일) 저녁 서울 꽃동신교회(김종준 목사) ☎(02)937-8334
주최: 대한예수교총회총회(김종준 목사) 전국남선도연맹총회(최정 백지영 목사)
23(월)~27(금)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기독교연맹총회(대림성 경일영 목사) ☎ 010-5721-7004
28(토) 오후 대한예수교총회(김종준 목사) 서남도 목사연수식
29(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교회(이매리 목사) ☎ 010-4870-7572
30(월) 오후 민족복음화부흥시원수원(원성 우형준 목사) ☎ 010-9021-8490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월)~31(화) 서울 기안교회(성영목 목사) ☎(02)2643-4296

대마도의 역사적인 진실, 대마도를 되찾자!!!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

대마도-한국영토 거론이 두려운 일본,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점수 했고, 일본 메이지(明治) 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시비를 멈추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 대마도(對馬島)-한국영토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다. '對馬島本是我國之地'(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있는 글귀다. 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 영토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km이다. 이 대마도에 고대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다. (魏志) 고대 馬韓(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對馬島'로 명명하였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對馬島)의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경상도)에 예속시켰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다.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다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對馬島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嶺南之趾)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스페인, 영국 등 서구군대와 세력의 해양영토 약탈시기→식민지 시기 등 연이은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 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시하라협정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협정에 편입)아예 자기를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조정(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후손) 자신도 세뇌했다. 우리는 그 뇌쇄적인

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건국)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6.25직전(3년 동안)까지 60여 차례나 요구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예곡-논문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 논문 등이 그 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미국은 마침내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다음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샌프란시스코협정)를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서는 영토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다.

아! 6.25가 대마도 반환 걸림돌 이승만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만은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만은 실효지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

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 귀절에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다. 대마도 회복(반환) 문제는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제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점장지도' (하야시시헤이(林千平) 제작, 프랑스어판)가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옳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엄연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속셈이 가증스럽다. 독도 시비에 말려들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현안대책을 위한 교단장 총무간담회

한국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선정. 책임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

한국교회 현안 대책을 위한 교단장 총무 간담회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장충동 엠베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열려 대사회 대정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소속 회원교단 총회장 총무 등 1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안타깝게도 공적과 비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고 말하고 “오늘이 자리는 한국교회가 담당한 대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일치된 힘으로 대응해 나갈으로써 한국교회의 하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회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회장은 또한 “기업들이 사회에 일정한 부분 책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담당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우선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100대 교회’를 선정하고 개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석우 목사(인문대 책임위원장)가 “대 언론 및 대 정부에 관한 대책”, 문영용 목사(이슬람대 책임위원장)가 “이슬람 대책”, 김진신 목사(바른신앙수호위원장)가 “이단 사이버 대책”, 고시영 목사(백만기 도운동본부 조직위원장)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박종현 목사(인권

위원장)가 “종교인 과세 대책”, 김춘규 장로(사무총장)가 “국가안전처 정책 시행 대책”, 최귀수 목사(신교 교육국장)가 “동성애 대책”에 대해 각각 발제하면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처 방안을 제시했으며, 자유토의를 통해 각 교단들이 담당한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회 100대교회 선정이 자칫 교회의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선정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보다 책임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종후 목사(합신 총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전광훈 목사(대신 총회장)의 사회로 박영길 목사(개혁 중

이아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 100대교회 선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사회 대정부 현안은 개교회 개교단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한국교회 중심적인 연합기관인 한교연을 통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한교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적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 조직된 TF특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

경총회장)의 기도, 이종복 목사(예성 총회장)의 성경봉독, 김요셉 목사(경경대표회장)의 ‘단합의 승리’ 제하의 설교, 장종현 목사(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요셉 목사는 설교에서 “고위공직자 38%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너

와 나를 떠나 하나가 됨으로써 성령님으로 확대하고 이날 발제한 각 위원장과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 위원으로 팀을 구성했다.

와 나를 떠나 하나가 됨으로써 성령님으로 확대하고 이날 발제한 각 위원장과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 위원으로 팀을 구성했다.



로 팀을 구성했다.

와 나를 떠나 하나가 됨으로써 성령님으로 확대하고 이날 발제한 각 위

AQ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 (고전 15:58).

대한예수교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 오전 09:00
주일 낮 예배 (2부) :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 저녁 06:30
수요예배 : 저녁 08:00
새벽예배 : 오전 04:30
금요철야예배 : 밤 11:00
주일학교예배(주일) : 오후 1:00
학생부예배(토) : 오후 4:30
청년부예배(토) : 오후 7:00

부목사 : 이주홍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심방전도사 : 원명숙
교육전도사 : 이민규
전도사 : 양승숙
성가대장 : 심재현
지휘 : 박성진 왕소정
반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gho

